

학령후기 아동의 성과 애착안정성에 따른 사회적 유능감

이 경 숙[†]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박 진 아

한신아동발달임상센터

본 연구는 학령후기 아동의 성과 애착안정성에 따른 사회적 유능감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5학년(M=만 11.54세)아동 319명(남아 170명, 여아 149명)과 6학년(M=만 12.53세) 아동 262명(남아 133명, 여아 129명) 및 아동들의 어머니 58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아동의 애착안정성(IPPA-R)과 부모가 지각한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ISCS) 및 같은 학급 또래 아동으로부터 받은 또래 지명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남아는 애착안정성이 낮은 경우 애착안정성이 높은 경우에 비해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불안정성이 더 높았으며, 또래로부터는 사회적으로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아는 애착안정성이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에 비해 어머니가 지각한 불안정성이 더 높고 또래로부터 사회적으로 더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학령후기 아동, 성, 애착안정성, 사회적 유능감

[†] 교신저자 : 이경숙,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E-mail : debkslee@hanshin.ac.kr

최근 생후 초기 주양육자와 맺는 애착관계가 전 생애를 통한 사회적 관계 기능과 연결된다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애착에 관한 연구가 영유아기에서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확대되고 있다(Cicchetti, Toth & Lynch, 1995). 애착이 전 생애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지속된다는 이론은 Bowlby(1982)의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로 설명되는데, 부모에 대한 애착은 내적작동모델에 따라 이후 전 생애 발달과정을 통해 개인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Ainsworth, 1979; Bretherton & Munholland, 1999; Bretherton, Ridgeway & Cassidy, 1990; Main, Kaplan & Cassidy, 1985; Matas, Arend & Sroufe, 1978; Sroufe, 1983). 특히, 부모와의 애착형성은 아동기에 아동이 또래 및 주변 환경과 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관계는 결국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노명희, 1995; 이숙희, 김숙령, 1996). 사회적 유능감이란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개인적 목표를 획득하는 능력으로 아동이 사회의 바람직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며 또래 관계 및 학교생활의 적응을 비롯한 사회정서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Anderson & Messick, 1974; Chen, Rubin & Li, 1995; Parker & Asher, 1987; Raver & Zigler, 1997; Waters, Wippman & Sroufe, 1983).

초기 양육자와의 애착관계가 이후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부모와의 안정적 애착은 아동으로 하여금 또래나 다른 타인에 대해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며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되는 동시에 또래에 의해 긍정적 반응을 얻게 된다(LaFreniere & Sroufe, 1985). 반대로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경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부정적 기대를 가지거나 또래와

의 관계에서 망설이고 소극적인 동시에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Rubin & Lollis, 1988; Sroufe, 1983). 또한 부모와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된 아동은 대인관계와 사회적 기술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더 능력이 있으며(Cohn, 1990), 또래에게 인기가 더 있게 된다(LaFreniere & Sroufe, 1985; Waters, Wippman & Sroufe, 1979). 또한 Elicker, Englund와 Sroufe(1992)의 연구에서도 안정애착아동들이 관찰자나 또래 지명법을 통해볼 때 불안정 애착아동보다 유의미하게 친구관계를 더 잘 맺고 또래와 우정관계를 더 잘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아동에게 다른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접근과 기대의 기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Sroufe & Fleeson, 1986/1988). 즉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양방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은 양육자와의 신호와 반응에 유관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아동으로 하여금 이후 후기 아동기에 어떻게 자신이 사회적 관계에서 반응해야 하며 또한 어떻게 사회적 관계를 맺는 타인이 자신에게 반응할 것인지를 기대하게 해주는 것으로 서로 관련되어 진다(Weinfeld, Sroufe Egeland, & Carison, 1999).

그러나,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학령전기 아동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학교라는 새로운 사회적 맥락에서 이전과는 다른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학령기 아동의 애착안정성과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를 유추하는 것에는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이에따라 애착안정성과 사회적-표상적 특성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는 최근 연구경향에서는 애착과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연구대상들이 학령전기에서 더 확장되어 학령후기 즉 중기아동기와 청소년기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위에서 설

명된 것과 같이 애착이 전 생애에 걸쳐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발달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적작동모델 견해에서 발달단계가 상이한 학령기 이후 아동의 경우에도 영유아기와 마찬가지로 애착안정성이 사회적 유능감과 관련이 있는지, 만약 관련이 있다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학령후기에는 사회적 관계가 매우 복잡해지면서 아동은 이 시기에 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적인 관계(예; 우정 등)를 꾸준히 유지하는 동시에 이전에 비해 조금 더 조직화된 집단과 또래의 사회적 관계에서 상호조절을 잘 해야 하므로 사회적 유능감은 이 시기 아동의 발달상 매우 중요한 과업이 되며 또한 발달단계상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는 학령기에 형성된 사회적 유능감의 질은 이후 청년기 및 성인기의 사회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Crick, 1996; Kupersmidt & Coie, 1990; Parker & Asher, 1987). 따라서 선행연구의 연구대상 연령을 더 확장하여 학령후기 아동의 경우에도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애착안정성이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내적작동모델에 대한 검증과 더불어 학령후기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보다 심도있게 이해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한편 애착안정성과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한 외국의 선행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아동의 성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부모에 대한 애착 변인에는 성차가 보고되고 있지 않지만, 애착과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가 남아에게서만 유의하며(Cohn, 1990; Lewis, Feiring, McGuffog & Jaskir, 1984) 남아의 경우가 여아에 비해 애착과 가족관계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DeMulder, Denham, Schmidt & Mitchell, 2000). 반면에 안정애착을 지닌 여아

들이 친구관계를 더 친밀하게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아는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여아의 애착안정성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된 연구도 있다(Ostoja, 1996). 또한 LaFreniere와 Sroufe(1985)의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여아의 경우 또래로부터 평가되는 지위가 낮았으나 Turner(1991)의 연구에서는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여아의 경우 안정애착을 보인 여아들에 비해 의존적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관계에서 오히려 긍정적 표현을 더 많이 하고 더 유순한 것으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위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아동의 성은 애착안정성이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중요변인임이 확실하며, 실제로 아동의 사회적 행동문제나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변인을 살펴본 선행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아동의 성에 따라 가족 변인과 행동문제의 상관관계나 영향력이 다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전연진, 2002; Rothbaum & Weisz, 1994). 이처럼 성차에 대해 연구결과들이 일관적이지 않게 나타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검사도구의 차이나 측정된 사회적 유능감 유형의 차이에 의해서일 수도 있지만, 각 문화마다 성별에 따른 양육환경이나 사회화 과정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일 수도 있다(도현심, 1994; Cohn, 1991; Hyde, 1984; Saarni, 1989; Turner, 1991).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외국에서 보고된 것이며 국내에서는 아동의 성에 따라 부모에 대한 애착안정성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간의 관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외국의 연구결과와 비교분석해 본 연구는 거의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남아와 여아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과 기대수준에 차이가 있고 각기 다른 사회화 과정을 겪게 되는 국내의 상황에서 학령후기 아동의 성과 애착안정성 정도를 동시에 고려하

여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성별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 유능감을 측정한 선행연구(Cohn, 1990; Lewis, Feiring, McGuffog & Jaskir, 1984)들을 살펴보면 사회적 유능감 측정에 있어 방법론상의 한계점이 있다. 즉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부모의 보고만을 사용하거나 또래지명에 의한 또래평가만을 측정하는 등 사회적 유능감을 단일측정차원에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Gresham(1981)과 Raver와 Ziger(1997)에 따르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다차원적 측정개념이므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다양한 측정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사회적 유능감을 평가시 평가의 주체에 따라 부모나 교사에 의한 평정, 관찰법, 자기보고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부모는 가정에서 그리고 교사는 학교에서 대부분 아동과 함께하기 때문에 일상적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을 관찰할 기회를 많이 가지고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평가하는 중요한 정보원으로 활용된다(한민경, 2003). 이와는 반대로 Hubbard와 Coie(1994)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적 유능감의 평가를 위해서는 부모나 교사보다는 아동이 속한 또래 집단의 보고가 더 유용하고 정확하다고 보는 데 이는 또래는 아동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스스로의 통찰을 제공할 수 있으며(Cairns, 1983; Cavell, 1990), 성인이 보지 못하는 또래간 관계의 역동성이나 학교상황의 생태학적 맥락에서 아동을 평가할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Pepler & Craig, 1995)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평가하기에는 또래에 의한 사회성 측정법이 적절하다고 본다. 이렇게 상반된 시각에 의해 기존의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부모보고를 사용하거나 또래측정에 의한 또래보고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아동의 사회적 유

능감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점과 학령후기 아동이 맺는 대부분의 사회적 관계가 학교의 또래 관계라는 것을 미루어볼 때,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보고뿐만 아니라 또래보고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부모나 교사와 같은 성인의 보고와 더불어 또래측정법에 의한 또래보고를 모두 사용한 기존 연구(Green, Forehand, Beck & Vosk, 1980; Pettit, Dodge & Brown, 1988)들의 측정방법을 본 연구에서도 사용하고자 했다.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학령후기 아동의 애착안정성 정도에 따른 사회적 유능감의 차이는 어떠한가?
- 2) 학령후기 아동의 성과 애착안정성 정도에 따른 사회적 유능감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위치한 1개 초등학교 5학년(M = 만 11.54세)아동 319명(남아 170명, 여아 149명)과 6학년(M = 만 12.53세) 아동 262명(남아 133명, 여아 129명) 및 아동들의 어머니 58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시기의 아동을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에서의 또래지위가 비교적 안정적이고(Coie & Dodge, 1983)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이다(이은혜, 1995). 또한 어머니가 아동이 가정에서 보이는 사회적 유능감을

직접적으로 관찰하여 평가할 수 있으므로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관한 결과를 수집시 또래보고와 어머니 보고를 함께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4월 중순에 실시하였으므로 또래지명을 평정할 수 있을 만큼 같은 반 또래들과 충분히 친숙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측정도구

애착안정성 척도

아동의 애착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 version: IPPA-R)를 번안 수정한 옥정(1998)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IPPA-R은 자기보고질문지로서 Bowlby가 제안한 애착대상에 대한 정서의 질적 특성이나 차이에 기초하여 제작되었으며 유의미한 애착인물에 대해 느끼는 안정성의 수준을 평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본 애착 척도는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이 안정적으로 잘 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 아동들 모두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지니고 있으며, 연령증가와 함께 남녀 모두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안정하게 유지된다는 Paterson, Field와 Pryor(1994)의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부모에 대한 애착 중 어머니에 대한 애착 25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는 도구의 신뢰도인 Cronbach's α 는 .89이었다.

사회적 유능감 척도

사회적 유능감을 다차원방법으로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어머니 보고와 같은 학급 또래가 실시한 또래지명에 의한 또래평정법 두 가지를 실시하였다. 우

선 어머니 보고용 질문지로는 Pease, Clark과 Crase(1979)의 사회적 유능감 척도(Iowa Social competency Scale: School form) 중 26문항으로 구성된 어머니용 질문지를 최경순(1992)이 번안 수정한 것을 다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1점("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부터 5점("항상 그렇게 한다")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유능성, 지도력, 방해성, 불안정성 및 부모에 대한 애정의 총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영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능성(capability)은 새로운 개념을 개발 하는데 흥미가 있으며 자신하여 활동을 시작하고 잠시 동안이라도 즐겁게 잘 지내며 새로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전의 경험을 활용하는 특성이다. 둘째, 방해성(disruptiveness)은 타인을 고려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그의 권리를 거의 중시하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서든지 자신이 주목의 대상이 되려고 하는 특성이다. 셋째, 지도력(leadership)은 다른 사람들이 따라 하는 활동을 먼저 시작하고 동료나 어른이 기꺼이 받아들이는 제안들을 하며 상황에 적절한 정보를 알아내어 효과적인 결정을 하는 특성이다. 넷째, 불안정성(apprehension)은 불안을 잘 견뎌내지 못하며 올바른 행동에 지나치게 얽매이고 타인의 비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모에 대한 애정(affection toward parents)은 부모와 함께하기를 즐거워하고 부모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수행하며, 부모와의 관계에서 개방적이고 온정적이며 붙임성을 보이는 특성이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사회적 유능감 척도의 신뢰도인 Cronbach's α 는 .83로 유능성은 .84, 방해성은 .85, 지도력은 .77, 불안정성은 .81, 부모에 대한 애정은 .66이었다.

둘째,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같은 학급의 동성 또래들을 대상으로 또래 지명

검사를 실시하였다. 동성 또래를 지명하게 한 이 유는 또래 간 상호작용이 2세부터 성별에 따라 분리되기 시작하여, 점차 이성보다는 동성의 또래와 더 자주 어울려 놀며, 청소년까지는 동성 친구에 대한 선호가 강하다는 선행연구결과(Erwin, 1998; Maccoby, 1988)에 근거하였다. 또래 지명 검사는 아동에게 같은 학급의 동성 또래 명단을 제시하고, 이 중에서 긍정적 지명 문항과 부정적 지명 문항에 해당하는 또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즉, 동성 또래 중에서 ‘생일파티에 초대하고 싶은 아동’과 ‘생일파티에 초대하고 싶지 않은 아동’을 각각 세 명씩 지명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초대하고 싶지 않은 아동의 이름을 적도록 하는 방식에서 다소 윤리적인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으나 사회 측정법에서 사용되는 부정적 지명이 아동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에 근거하였다(Greham & Little, 1993). 또래지명법에 의한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Coie와 Dodge(1983)의 절차에 따라 사회적 선호와 사회적 영향의 두 개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학급에서 각 아동들이 자신의 학급 안에서 동성 또래들로부터 받은 긍정적 지명수와 부정적 지명수를 각 학급단위로 표준점수화(Z점수)하였다. 표준화된 긍정적 지명점수(Like More: LM)에서 표준화된 부정적 지명점수(Like Least: LL)를 뺀 점수는 사회적 선호점수(Social Preference: SP)가 되며, 이는 아동이 같은 학급 또래들로부터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선호되는지를 의미한다. 또한 표준화된 긍정적 지명점수와 표준화된 부정적 지명점수를 더한 점수는 사회적 영향점수(Social Impact: SI)가 되며, 이는 아동이 같은 학급 또래에게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으로 또래 간의 상호작용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지를 의미한다.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아동의 애착안정성 정도에 따른 사회적 유능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아동의 성과 애착안정성 정도에 따른 사회적 유능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아동의 애착안정성 정도에 따른 사회적 유능감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다차원측정개념에 근거하여 부모보고용 사회적 유능감(유능성, 지도력, 방해성, 불안정성, 부모에 대한 애정)과 같은 학급의 또래로부터 평가된 또래지명법에 의한 사회적 유능감(사회적 선호와 사회적 영향)의 두 가지 측정방법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부모보고

부모가 보고한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각 하위 영역이 애착 안정성 정도의 상하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우선 애착 안정성에 따른 상하집단 구분을 위하여 한 집단내의 상하집단 구분을 사용한 선행연구(이경숙, 신의진, 신동주, 전연진, 박진아, 2003)의 방법을 참조하여 부모에 대한 애착 총 점수 상위 30%와 하위 30%를 구분한 뒤, 이를 애착 안정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결과를 확인함에 있어 더욱 보수적인 통계치를 사용하고자 하였기 때

표 1. 아동의 애착 안정성 정도에 따른 사회적 유능감의 차이

하위영역	애착 안정성	애착 안정성 정도		t
		상집단(n=151) M(SD)	하집단(n=148) M(SD)	
유능성		32.95 (6.15)	28.14 (5.62)	3.87 ***
방해성		14.31 (3.97)	19.22 (3.72)	-2.04 *
지도력		9.49 (2.60)	8.52 (2.21)	3.49 **
불안정성		9.01 (2.88)	9.54 (2.81)	-1.60
부모에 대한 애정		14.19 (3.24)	13.40 (3.25)	2.07 *

* $p < .05$, ** $p < .01$, *** $p < .001$

문이다.

아동이 애착 안정성 집단별 부모보고에 따른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t 검증 결과, 모가 지각한 아동의 불안정성을 제외한 유능성, 방해성, 지도력, 부모에 대한 애정 영역에 대한 사회적 유능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애착 안정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 애착 안정성이 낮은 집단에 비해 유능성이 높고($t = 3.87, p < .001$), 방해성은 낮으며($t = -2.04, p < .05$), 지도력은 높고($t = 3.49, p < .01$), 그리고 부모에 대한 애정은 높은($t = 2.07, p < .05$)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애착 안정성이 높은 아동의 경우, 사회적으로 더 유능하고, 타인을 더 존중하며 무시하는 경향은 낮았으며, 지도력이 높고, 부모에

대한 애정표현도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래보고

또래지명법에 의해 측정된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각 하위영역(사회적 선호와 사회적 영향)이 애착 안정성 정도의 상하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 의하면 아동의 애착안정성 정도에 따라 또래가 보고한 사회적 선호($t = 3.87, p < .001$)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애착안정성이 높은 집단은 애착안정성이 낮은 집단에 비해 또래로부터 사회적으로 더 선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애착안정성 정도에 따른 사회적 유능감의 차이

하위영역	애착안정성	애착 안정성 정도		t
		높은집단 (n=151) M(SD)	낮은집단 (n=148) M(SD)	
사회적 선호		.32(1.47)	-.37(1.63)	3.87***
사회적 영향		.10(1.07)	-.14(1.14)	1.84

*** $p < .001$

아동의 성과 애착안정성 정도에 따른 사회적 유능감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이 성과 애착안정성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보고

부모가 보고한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유능성, 지도력, 방해성, 불안정성, 부모에 대한 애정

각 하위영역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과 같다.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각 하위영역이 성과 애착안정성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영역 중 유능성과 지도력, 방해성과 부모에 대한 애정의 4개 하위영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모가 지각한 아동의 불안정성은 통

표 3. 아동의 성과 사회적 유능감의 평균과 표준편차

하위영역	독립변인	성	애착안정성	
			상집단(N=147) M(SD)	하집단(N=140) M(SD)
유능성		남아(N=133)	31.19(17.47)	26.18(5.45)
		여아(N=154)	34.69(18.01)	29.60(14.62)
지도력		남아(N=133)	13.88(10.63)	11.43(2.70)
		여아(N=154)	13.22(3.06)	12.74(10.15)
방해성		남아(N=133)	14.45(4.21)	15.43(3.41)
		여아(N=154)	14.01(3.78)	15.18(3.99)
불안정성		남아(N=133)	8.33(2.77)	9.8(2.67)
		여아(N=154)	9.65(2.92)	9.41(2.88)
부모애정		남아(N=133)	13.93(3.51)	14.00(3.17)
		여아(N=154)	14.51(2.93)	13.01(3.23)

표 4. 아동의 성과 애착안정성도에 따른 불안정성 하위영역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하위영역	변량원	지승합	자유도	평균지승	F값
불안정성	성	15.42	1	15.42	1.93
	애착안정성 정도	27.06	1	27.06	3.40
	성×애착안정성 정도	51.71	1	51.71	6.49**
	오차	2255.96	283	7.97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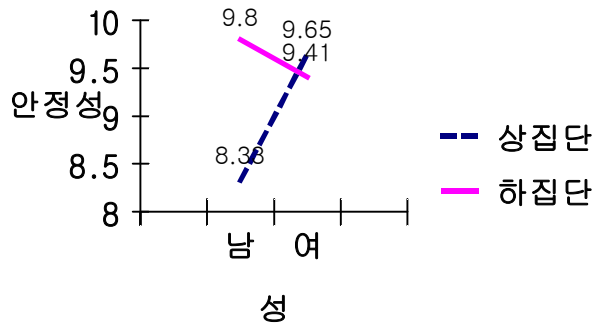


그림 1. 아동의 성과 애착안정성 정도에 따른 불안정성의 상호작용 효과

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안정성에 대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영역 중 모가 지각한 아동의 불안정성 ($F=6.49, p<.01$) 영역에서 성과 애착안정성 정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표 3>와 <그림 1>에 의하면, 남아는 애착안정성이 낮은 경우 애착안정성이 높은 경우에 비해 모가 지각하기에 불안정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여아는 애착안정성이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에 비해 불안정성이 높게 나타났다. 즉 남아의

경우 애착안정성이 낮은 경우 모가 지각하기에 심리적 불안정성을 높게 경험하지만 여아의 경우에는 애착안정성이 높은 경우 심리적 불안정성을 높게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또래보고

또래지명법에 의해 측정된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각 하위영역(사회적 선호와 사회적 영향)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5>와 같다.

아동의 성과 애착안정성 정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적 영향의 영역은

표 5. 아동의 성과 애착안정성 정도에 대한 사회적 선호 및 영향의 평균과 표준편차

하위영역	독립변인	성	애착안정성	
			상집단(N=147) M(SD)	하집단(N=140) M(SD)
사회적 선호		남아(N=133)	-.18(1.59)	-.02(1.70)
		여자(N=154)	.31(1.53)	-.38(1.73)
사회적 영향		남아(N=133)	.29(1.11)	-.03(1.15)
		여아(N=154)	-.07(1.08)	.06(1.14)

표 6. 아동의 성과 애착안정성도에 따른 사회적 선호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하위영역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값
	성	.31	1	.31	.12
사회적 선호	애착안정성 정도	4.97	1	4.97	1.85
	성×애착안정성 정도	12.69	1	12.69	4.72*
	오차	760.48	283	2.69	

* $p < .05$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적 선호영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선호 영역에 대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사회적 선호($F = 4.72, p < .05$)에서 아동의 성과 애착안정성 정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이를 도식화하면 각각 <그림 2>과 같다.

<표 5>와 <그림 2>에 의하면, 남아는 애착안정성이 낮은 경우 애착안정성이 높은 경우에 비해 사회적으로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아는 애착안정성이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에 비해 사회적으로 더 선호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여아는 애착안정성이 높은 경우 또래에 의해 사회적으로 더 선호가 되는 반면, 남아는 애착안정성이 낮은 경우 또래에 의해 사회적으로 더 선호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 애착안정성 정도에 따라 어머니가 보고한 사회적 유능감 중 유능성과 방해성, 지도력과 부모에 대한 애정에서 유의한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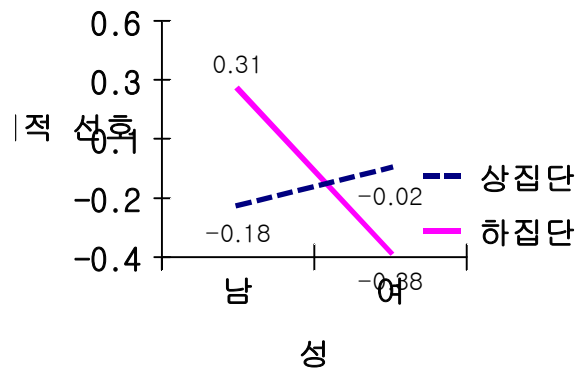


그림 2. 아동의 성과 애착안정성 정도에 따른 사회적 선호의 상호작용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지명법으로 측정된 사회적 유능감 중 사회적 선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정적 애착과 사회적 능력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결과(이숙희, 김숙령, 1996; 홍계옥, 최경순, 1996; Cohn, 1990; Elicker, Englund & Sroufe, 1992)들과 마찬가지로 애착안정성이 높은 아동은 사회적으로 더 유능하고 지도력이 있으며, 부모에 대한 애정표현을 많이 하고, 또래간의 상호작용 관계에서 덜 방해적임을 의미한다. 또한 애착안정성이 높은 경우 사회적으로 더 선호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에 대한 애착안정성 정도가 이후 아동이 맺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유능감과 긍정적 관계가 있음을 통해 아동의 발달에 있어 부모에 대한 애착안정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게 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제한점이라고 지적된 사회적 유능감의 일차원적 측정방법을 보완하여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측정함에 있어 부모보고와 또래보고의 두 가지 측정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부모보고의 유능성, 방해성, 지도력, 부모에 대한 애정의 하위영역들과 또래보고 중 사회적 선호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애착안정성이 높은 아동은 부모가 보기에 더 사회적으로 더 선호된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즉 애착안정성이 높은 아동들은 부모가 가정을 비롯한 여러 사회적 환경 속에서 관찰하기에도 사회적으로 더 유능하지만, 이와 동시에 부모가 개입되지 않는 학교에서의 또래집단 상호작용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더 유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부모보고와 또래보고가 어느 정도 일치함을 의미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차

원적 측정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사회적 유능감을 다양한 맥락에서 측정하여 평가함으로써 애착안정성과 사회적 유능감간의 관계에 대해 보다 포괄적으로 심도있게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둘째, 학령후기 아동은 성과 애착안정성 정도에 따라 부모가 지각한 사회적 유능감과 또래로부터 평가된 사회적 유능감 간에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우선 남아의 경우 애착안정성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부모가 지각하기에 타인의 비판과 평가에 더 민감하며 사회적 관계에서 불안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성별을 나누지 않고 이루어진 연구결과들에서 나타난 것처럼 불안정애착이 아동기의 불안감이나 분노감 등의 부정적 정서와 관련된다(Cassidy & Berlin, 1994; Suess, Grossmann & Sroufe, 1992)는 결과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비판이나 평가에 민감하고 불안을 경험하는 것은 여아의 성향이라는 인식 하에 남아는 외현화 행동문제에, 여아는 내면화 행동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학령후기에는 여아에 비해 남아의 내면화 행동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던 박진아(2001)의 연구결과와 애착안정성이 낮은 경우 남아가 여아에 비해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와 여아에 대한 이중적인 사회화 과정과 사회적 인식 측면, 그리고 애착의 내적작동모델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면 이해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아에 비해 남아의 경우 발달단계마다 사회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타인의 평가에 예민하고 불안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남아의 특성상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애착안정성이 낮은 남아의 경우 이미 영유아기부터 형성

된 내적작동모델로 인해 타인이나 또래의 평가에 더 예민하게 되고 불안감이나 분노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Cassidy & Berlin, 1994; Suess, Grossmann & Sroufe, 1992). 이에 따라 사회적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내재된 불안이나 타인의 평가에 대한 예민함을 표현하게 되지만 사회 통념상 이러한 감정의 발산이 억제되고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한 채 부정적으로 통제되게 되기 때문에 애착안정성이 낮은 남아는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과잉통제하게 되고 더욱 위축되어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남아가 자신의 감정을 발산하지 못하고 제한하는 것이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된다는 Hendryx와 동료들(1991)의 연구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이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추후연구에서는 학령후기 남아가 사회적 상황에서 경험하는 불안에 대한 연구와 이를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이 강조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반면에 여아는 애착안정성이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에 비해 사회적 불안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음의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 여아의 기질적 특성과 애착안정성을 어머니가 보고하였다는 보고자의 문제에 기인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불안에 대한 성차를 살펴본 선행연구결과(한미현, 1996; Costello, 1989; Anderson, Williams, McGee & Silva, 1987)들에 비추어 볼 때 여아가 남아에 비해 불안을 비롯한 내면화 행동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며, 여아의 이러한 불안은 사회적으로 일반적인 성향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애착안정성이 높을지라도 여아는 남아에 비해 어머니가 불안을 여아의 일반적인 성향으로 인식하여 높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애착안정성이 낮은 여아의 경우 사회적 유능감의 보고자

인 어머니가 애착안정성이 높은 어머니에 비해 자신의 자녀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민감하게 평가하여 보고하지 못했을 경우 불안에 대한 평가가 과소평가 되었을 수 있다. 둘째,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여아와 달리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여아들이 보이는 독특한 사회적 성향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여아의 경우 자신의 내면 감정 중 사회적 불안을 경험할 경우 이를 자연스럽게 표출하여 해결하는 시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머니에 의해서는 불안이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Turner(1991)의 연구에 따르면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여아들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여아들에 비해 더 의존적이고 미소나 기쁨을 표현하는 등의 긍정적인 감정표현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lock(1983)의 연구에서도 여아는 불안을 해소하는 대처전략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소와 같은 표현행동이 갈등을 회피하게 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유순하거나 복종적인 행동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여아의 경우 사회 통념상 이와 같은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관찰한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여아의 어머니는 자녀의 사회적 성향이 불안을 더 잘 견디고 타인의 비판이나 평가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추측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여아들의 경우 사회적 상황에서 겉으로 나타내는 감정표현과 대처능력이 사회적으로는 바람직해 보일 지라도 내면적으로는 어떠한 심리적 역동이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특히 Maccoby(1986)에 따르면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여아의 경우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않기 때문에

남아에 비해 적대감 표현을 억제하고 공격성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추후연구에서는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여아들의 심리적 특성과 그것이 표현되는 사회적 행동간의 일치도와 차이점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질적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또래가 보고한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살펴본 결과 여아는 애착안정성이 높은 경우 낮은 경우에 비해 사회적으로 더 선호되는 결과가 나타나 앞서 살펴본 안정애착이 또래집단에서도 사회적으로 더 유능하게 한다는 결과가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남아는 애착안정성이 낮은 경우 높은 경우에 비해 또래에 의한 사회적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Ostoja(1996)의 연구에서 남아의 경우 애착안정성과 사회적 선호도간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게 나타났던 결과와 상반되는 것으로 추후 연구를 통해 애착안정성과 사회적 유능감간의 관계에 미치는 남아의 성 변인 영향을 다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애착이 불안정한 남아의 경우 또래에 의해 더 공격적이고 주도적인 성향이 있다는 Cohn(1990)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학령후기 아동의 발달연령상 성정체성과 성역할을 습득하는 시기에 다소 공격적이며 자기 주도적인 남아가 사회문화적으로 더 선호된다는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령후기로 갈수록 남아는 사회통념상 부모나 성인으로부터 여아에 비해 활동적이며 다소 공격적이고, 자기 주장적인 특성을 요구받으며(민정원, 2000) 성정체성과 성역할을 학습하게 되는데, 애착안정성이 낮은 학령후기 남아의 경우 이러한 성향이 성역할 습득과 사회적 성유형화와 맞물려 또래로부터 사회적으로는 더 부각되며 선호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애착안정성이 낮은 남아의 경우 다

소 주도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또래에 의해서 더 선호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령후기의 발달단계 상 성역할과 사회적 성유형화가 정착되고 확립되기 이전의 과정단계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학령전기 아동과 사춘기 이후의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완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후속연구를 위한 두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또래지명법을 사용하여 사회적 선호와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였으나 지명법에 근거하였으므로 사회적 선호나 사회적 영향의 구체적 의미와 내용에 대해 분석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즉, 연구대상 아동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선호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양적 평가는 가능할 수 있지만 어떤 측면 때문에 사회적으로 선호가 되며 구체적으로 또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질적평가를 내리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외국 연구의 경우 애착안정성과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측정연구에서 일회적인 질문지 보고가 아닌 일정기간 자연스러운 합숙생활(예, 캠프 등)과정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자와 지도교사들이 질적평가 방법을 사용한다(Elicker, Englund & Sroufe, 1992). 따라서 아동의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사회적 유능감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일 수 있고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유능감의 질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실제 사회적 상황에서의 자연관찰법 등의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적으로 선호되거나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탐색과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방법을 통해 성과 애착안정성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학령후기 남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또래간 관계에서 유추되는 사회적 능력에 대해 애착안정성이 낮은 집단이 심리적으로 더 불안하고, 사회적으로는 또래에 의해서는 더 선호되지는 특성에 대해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학령후기 남아의 특성에 제한되기 때문에 추후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가 외국의 연구결과에서처럼 청소년기에도 애착안정성과 사회적 유능감이 관련되는 것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더불어 남아 또래관계의 사회적 선호요인의 변화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학령후기 아동의 성과 애착안정성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아동의 애착안정성이 사회적 유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포함되는 다른 매개변인이나 중재변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하였으므로 추후연구에서는 다른 여러 관련 변인을 포함하여 이들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탐색을 제안한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를 통해 그동안 애착연구에서 드물게 연구되었던 학령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애착안정성과 사회적 유능감간의 관련성을 다차원적 측정방법으로 입증하여 부모와의 애착안정성이 학령후기의 발달에도 매우 중요한 보호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드물게 이루어진 성차연구를 통해 성변인이 애착과 사회적 유능감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 부모의 자녀성별에 따른 관계 및 그 지각정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애

착안정성이 낮은 학령후기 남아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정보가 학령후기 남아의 불안감소를 위한 중재프로그램 접근의 기초자료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노명희 (1995).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능력.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도현심 (1994). *Social competence of kindergartener and sixth grades: Its relationships to parental attention, parental protectiveness, the children's sex, and their birth category*.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민정원 (2000). 아동의 애착안정성과 자아지각 및 사회적 능력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진아 (2001).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숙, 신의진, 신동주, 전연진, 박진아 (2003). 한국판 영유아 행동문제 평가척도 표준화 예비연구. 발달심리학회지, 16(4), 175-191.
- 이숙희, 김숙령 (1996).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1), 87-100.
- 이은혜 (1995). 아동발달의 평가와 측정. 서울: 교문사.
- 옥 정 (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과 우울 성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연진 (2002). 삼세대 가족관계 경험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민경 (2003).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 양육행동 및 아동의 정서 이해 능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경순 (199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계옥, 최경순 (1996). 유치원 유아의 모자녀간 애착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1), 101-114.
- Ainsworth, M. D. S. (1979). Attachment as related to mother-infant interaction. In J. G. Rosenblatt, R. A. Hinde, C. Beer, & M. Busnel(Eds.), *Advances in the study of behavior*, 9. Orlando, FL: Academic Press.
- Anderson, S., & Messick, S. (1974). Social competence in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0, 282-293.
- Anderson, D. J., Williams, S., McGee, R., & Silva, P. A. (1987). DSM-III disorders in preadolescent children: Prevalence in a large sample from the general popula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4, 69-76.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3.
- Block, J. H. (1983). Differential premises arising from differential socialisation of the sexes: Some conjectures. *Child Development*, 54, 1335-1354.
- Bretherton, I., & Munholland, K. A. (1999). Internal working models in attachment relationships: A construct revisited. In Cassidy, J. & Shaver, P. 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pp. 89-123).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 Inc.
- Bretherton, I., Ridgeway, D., & Cassidy, J. (1990). Assessing internal working models of the attachment relationship: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for 3-year-olds. In M. Greenberg, D., Cicchetti, E. M. Cummings, (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87-12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airns, R. B. (1983). Sociometry, psychometry, and social structure: A commentary on six recent studies of popular, rejected and neglected children. *Merrill-Palmer Quarterly*, 29, 429-438.
- Cassidy, J., & Berlin, L. (1994). The insecure ambivalent pattern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Child Development*, 65, 971-981.
- Cavell, T. A. (1990). Social adjustment, social performance, and social skills: A tri-component model of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 111-122.
- Chen, X., Rubin, K. H., & Li, Zhen-yun. (1995). Social functioning and adjustment in Chinese children: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31(4), 531-539.
- Cohn, D. A. (1990). Child-mother attachment of six-year-olds and social competence at school. *Child Development*, 61, 152-162.
- Cohn, L. D. (1991). Sex differences in the course of personality development: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09(2), 252-266.
- Cicchetti, D., Toth, S. L., & Lynch, M. (1995). Bowlby's dream comes full circle: The application of attachment theory to risk and psychopathology. *Advances in clinical child psychology*(Vol. 17,). New York: Plenum Press.

- pp. 1-75.
- Coie, J. D. & Dodge, K. A. (1983). Continuities and changes in children's social status: A five year longitudinal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29, 261-282.
- Costello, E. J. (1989). Child psychiatric disorders and their correlates: A primary care pediatric sampl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8, 851-855.
- Crick, N. R. (1996). The role of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 in the prediction of children's future soci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2317-2327.
- DeMulder, E. K., Denham, S., Schmidt, M., & Mitchell, J. (2000). Q-sort assessment of attachment security during the preschool years: Links from home to 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36(2), 274-282.
- Elicker, J., Englund, M., & Sroufe, L. A. (1992). Predicting peer competence and peer relations in childhood from early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R. Parke & G. Ladd (Eds.), *Family-Peer Relationships: Models of linkage* (pp. 77-106). Hillsdale, NJ: Erlbaum.
- Erwin, P. (1998).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NY: Routledge.
- Green, K. D., Forehand, R., Beck, S. J., & Vosk, B. (1980). Measures of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Child Development*, 51, 1149-1156.
- Gresham, F. M. (1981). Validity of social skills measures of assessing social competence in low-status children: A multi variate investig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7, 390-398.
- Greham, F. M., & Little, S. G. (1993). Peer-referenced assessment strategies. In T. H. Ollendick, M. Hersen(Eds.), *Handbook of child and adolescent assessment*. Boston: Allyn and Bacon, pp. 165-179.
- Grossman, K. E., & Grossman, K. (1991). Attachment quality as an organizer of emotional and behavioral responses in a longitudinal perspective. In C. M. Parkes, J. Stevenson-Hinde, & P. Marris (Eds.), *Attachment across the life cycle*(pp. 93-114). London: Routledge.
- Hendryx, M. S., Haviland, M. G., & Shaw, D. G. (1991). The place of emotion in identity.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4, 503-518.
- Hubbard, J. A., & Coie, J. D. (1994). Emotional correlates of social competence. *Merrill-Palmer Quarterly*, 40, 1-20.
- Hyde, J. S. (1984). How large are gender differences in aggression? A developmental meta-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20, 722-736.
- Kupersmidt, J. B., & Coie, J. D. (1990). Preadolescent peer status,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as predictors of ex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 1350-1362.
- LaFreniere, P. J., & Sroufe, L. A. (1985). Profiles of peer competence in the preschool: Interrelations between measures, influence of social ecology, and relation to attachment history. *Developmental Psychology*, 21, 56-69.
- Lewis, M., Feiring, C., McGuffog, C., & Jaskir, J. (1984). Predicting psychopathology in six-year-olds from early social relations. *Child Development*, 55, 123-136.
- Maccoby, E. E. (1986). Social groupings in childhood: Their relationship to prosocial and antisocial behavior in boys and girls. In D. Olweus, J.

- Block, & M. Radke-Yarrow(Eds.), *Development of antisocial and prosocial behavior*(pp. 263-284). London: Academic Press.
- Matas, L., Arend, R. A., & Sroufe, L. A. (1978). Continuity of adaption in second year: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attachment and later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49, 547-556.
- Ostojia, E. (1996). *Developmental antecedents of friendship competence in adolescence: The roles of early adaptational history and middle childhood peer compet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acceptance and later adjustment: "Are low 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Paterson, J. E., Field, J., & Pryor, J. (1994).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attachment relationships with their mothers, fathers, and friend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5), 579-600.
- Pelper, D., & Craig, W. M. (1995). A peek behind the fence: Naturalistic observations of aggressive children with remote audio visual recor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1, 548-553.
- Pease, D. Clark, S. G., & Crase, S. J. (1979). *Iowa social competence scales: School age and preschool manual*. Iowa State Research Foundation. Inc.
- Pettit, G. S., Dodge, K. A., & Brown, M. M. (1988). Early family experience, social problem solving pattern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9, 107-120.
- Raver, C., & Zigler, E. F. (1997). Social competence: An untapped dimension in evaluating Head Start's succes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2, 363-385.
- Rothbaum, F., & Weisz, J. R. (1994). Parental caregiving and child externalizing behavior in nonclinical sample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55-74.
- Rubin, K. H., & Lollis, S. P. (1988). Origins and consequences of social withdrawal. In J. Belsky & T. Nezworski (Eds.), *Clinical implications of attachment*(pp. 219-252). Hillsdale, NJ: Erlbaum.
- Saarni, C. (1989). Children's understanding of strategic control of emotional expression in social transaction. In C. Saarni & P. Harris(Eds.),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pp. 181-207).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roufe, L. A. (1983). Infant-caregiver attachment and patterns of adaptation in preschool: The roots of maladaptation and competence. In M. Perlmutter. (Ed.), *Development and policy concerning children with special needs.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Vol. 16). Hillsdale; Lawrence Erlbaum.
- Sroufe, L. A., & Fleeson, J. (1986). Attachment and the construction of relationships. In W. Hartup & Z. Rubin(Eds.), *Relationships and development* (pp. 239-252), 15, 43-65. Hillsdale, NJ: Erlbaum.
- Sroufe, L. A., & Fleeson, J. (1988). The coherence of individual relationships. In R. A. Hinde & Stevenson-Hinde (Eds.), *Relationships within families: Mutual influences* (pp.27-47).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uess, G. J., Grossmann, K. E., & Sroufe, L. A. (1992). Effects of infant attachment to mother and father on quality of adaptation in

- preschool: From dyadic to individual organization of self.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5, 43-65.
- Turner, P. J. (1991). Relation between attachment, gender, and behavior with peers in preschool. *Child Development*, 62, 1475-1488.
- Waters. E., Wippman. J., & Sroufe, L. A., (1979). Attachment, positive affect and competence in the peer group: Two studies in construct validation. *Child Development*, 50, 821-829.
- Weinfield, N. S., Sroufe, L. A., Egeland, B., & Carlson, E. A. (1999). The nature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t- caregiver attachment. In J. Cassidy & P.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 (pp. 79-80). New York: The Guilford Press.

Social competence to sex and attachment security in late school-aged children

Kyung Sook, Lee

Hanshin University
Dept. of Rehabilitation

Jin Ah, Park

Hanshin Child Development Cen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social competence to sex and parental attachment security in late school-aged children. The subjects were 581 fifth and sixth graders from one elementary school in Seoul and their mothers. Children's parental attachment security was assessed by IPPA-R(Armsden & Greenberg, 1987) and their social competence was obtained by their mothers through ISCS(Pease, Clark & Crase, 1979). The data was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two-way ANOVA.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children's social competence differed as a function of child's sex and maternal attachment security. Boys of low maternal attachment security group were more apprehensive and got more social preference from peers.

Keywords : late school-aged children, sex, attachment security, social competence